

맛따라 맛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38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순천만 갈대축제

친환경 농산물 둘러 보고... 늦가을의 정취 만끽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24일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농업박람회는 전남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확보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8일간 갈대축제가 열리는 순천만의 전경. 갈대와 함께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순천만 갈대축제'는 순천만이 지닌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타 축제와는 차별화된 전국적인 생태환경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0월 24일~11월3일

허브 향료관·누에관·야생버섯 동산 등 둘러 볼만

'제 7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농업박람회는 지난해에 비해 개최기간을 6일에서 11일간으로 5일 늘렸으며, 시·군 친환경 농·특산물의 단순 전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판매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간다.

생명예술관·친환경 농업관·녹색명품관·신비한 누에관 등 15개 주 전시관이 개설되고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터 2개소, 체험마당 15종, 공연·경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생명예술관=우리인식 7개 등을 관람객의 스트레스 해소와 생활에 활력을 주는 '허브 향료관'과 농업을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닌 예술로 승화시킨 '농업예술관', 자연을 관광 산업화한 '생활예술관'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전시·판매관중 유일하게 성인 3천원, 청소년 2천원, 7세 이상 어린이 1천원(6세 이

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입장)의 입장료를 받는다.

▲친환경 농업관=전남 쌀의 우수성 홍보와 친환경 농업 전시는 물론 검정·노랑·분홍색의 나타리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등 12종의 식용·약용버섯이 입체 전시된다.

특히 '친환경 명품 장류 1000+777선' 전시코너에서는 보성 선씨 종가의 350년 덧간장, 운사분 농가의 1억원 명품 간장 등이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색 농산물 코너= 60kg가 넘는 초대형 호박, 달걀크기 대추, 아름다운 빛깔의 색동호박, 세모난 오이와 네모난 오이, 검정 빛깔 토마토, 길이가 30cm 이상 되는 갓근 등, 2m가 넘는 뽕오이, 기형적 모양의 대봉감 등 전국에서 수집한 특이하고 희한한 농산물 176종 2천124 점이 전시된다.

▲신비한 누에관=고치를 짓는 과정부터 고치를 뚫고 나와 나방이 꼬미를 한 후 알을 낳는 누에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다. 별난 누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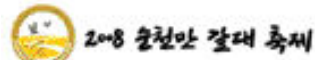
치 30여 종과 누에·오디·뽕잎을 가공한 누에가루, 오디즙, 뽕잎차 등 양잠 산물과 실크제품, 누에고치를 이용한 목걸이 등 특허 등록된 소품 20여 종을 비롯해 물레를 사용한 명주실 뿔기, 누에 뽕잎주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희귀 약용곤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방산업 전시체험관'이 설치되며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2008 보완통합의학 프레 박람회', '여대 농업인 성공사례 발표회' 등도 열린다.

농업 농촌 사진전, 정크아트, 동물 농장, 시·군 농특산물 홍보 상점장 등이 마련되며 친환경 농자재 및 신종 농기계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또한 농작물(고구마·감자) 수확체험, 천연 향수·화장품 만들기, 토피어리 만들기, 감치 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부대행사는 물론 '남도 향토음식 장터'가 본관 뒤편에서 열린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10월 28일~11월4일

생태투어·흑두루미 콘서트 등 이벤트 다양

'늦가을 드넓은 순천만 갈대밭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세요.'

갈대의 아름다움과 철새들의 군무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2008 순천만 갈대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8일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 탐사트레킹 일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무려 5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252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록한 순천만 갈대축제는, 순천만이 가진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여타 지역의 일반 축제와는 차별화된 전국적인 생태환경축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순천만 갈대축제는 람사르(Ramsar)총회와 세계NGO대회 등 수많은 외국인의 관심이 집중된 대형 행사와 같은 시기에 열림으로써 순천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람사르 총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순천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는 이에 따라 2008년 갈대축제의 주제와 부제를 '생명의 땅 순천만을 날다'와 '갈대와 흑두루미의 지구촌 사랑'으로 각각 선정하고 세계적인 생태환경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마쳤다.

축제 첫날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순천만 사랑걷기대회'와 '탐사트레킹 준공 기념식'이 열리며 철새 탐조를 포함한 '순천만 생태투어'와 흑두루미 등(燈)에 소원을 적는 '흑두루미 하늘길', 테마기행 '갈대소리 찾간 속에 잡기' 등의 기획행사도 준비됐다.

또 람사르총회 공식 탐방일인 다음달 2일에는 '갈대와 흑두루미의 사랑콘서트'가 진행되며, 행사 기간 내내 갈대와 갯벌 그리고 철새 체험마당이 마련된다.

갈대축제 관련한 국제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우선 '세계습지연대 아시아지역

회의'가 아시아습지센터 관계자 15명과 국내습지센터관리자 4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까지 열린다. 또 '세계습지 NGO 대회'가 국외참가자 150명을 비롯, 국내참가자 50명 등 모두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며, 2008람사르총회 기념 제 2회 청소년 습지연구공모전이 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개최된다.

한편, 800만여 평 규모의 순천만에는 77만여 평의 갈대밭이 조성돼 있고 조류 200여 종과 120여 종의 염생(鹽生)식물, 멸종위기 조류 12종이 서식하고 있다. 순천만은 인공적으로 철새들에 먹이를 주는 일본 이즈미 시 습지와는 달리 자연 먹잇감이 널려 있고, 갯벌과 갈대가 조성돼 있어 조류들이 다른 동물들의 침해를 받지 않는 천혜의 습지로 평가받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eungdaebada' (승대바다) featuring a large fish and a building. Text includes '승대바다', '수소수', '생이전물점',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eungdaebada' (승대바다) featuring a woman and a water purifier. Text includes '아실수록 가벼워지는 수소수!',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and '수소수 100% 활성산소 제거'.